한걸음 더 불자답게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우린 많은 이들과 만나고,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많은 이들과 삶에 대해 공유한다.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이러한 삶의 기본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 다를 수 없는 삶의 방식과 순간순간의 시간 모두에 '불자답게'라는 기준을 가져다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무심코 살아가는 삶의 중간 중간에 잠깐의 방점을 찍을 필요는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반성이 일어난다면 스스로 불자라고 칭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돌아오는 흔한 답변 중의 하나가 그럴 틈이 없다는 것이다.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의 빠름을 쫓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또 요구한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이 소통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을 오히려 스쳐 지나가는 단편적인 정보의 하나로 여기게끔 만들어도 의식하지 못한다.

서로의 생각, 서로의 말, 서로의 행동을 누적된 정보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사라져 버린다. 우리 대부분은 누적된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에 휩쓸려버리기 때문이다. 고민이나 판단의 틈, 여지가 사라져 버린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순간에 필자가 떠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전법선언이다.

法 전하고 전해받는 모임, 법회
대법회 계기로 불교적 디테일이
불자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한 법을 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梵行)을 드러낸 법을 설하라."

〈상윳따니까야〉에 나오는 전법선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도대체 훌륭하다 혹은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을 훌륭하다, 좋다고 하는 것일까? 전하는 내용의 훌륭함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해받는 내용의 훌륭함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 둘 다 훌륭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전법은 전하는 것이고, 전해받는 대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해받는 모임, 그것이 법회이다. 달리 말하면 법회는 소통이다. 소통은 주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다. 불교도 대법회는 현대인의 바쁜 삶, 속도에 지친 삶에 대한 자기성찰과 여유를 요구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틈, 여지를 요청하는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 여지를 만들어주는 불교적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번 불교도 대법회를 계기로 불교적 디테일이 불자들의 삶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를 기대해 본다. '존중, 멈춤 그리고 관심'이다.

'일당백' 도심 포교당이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전법의 대상이 대부분 도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도심 포교당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현대 도시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됨으로써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고, 공간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구, 주택, 실업, 교통, 환경, 범죄, 공동체 해체, 인간소외, 빈부격차 및 빈곤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파장 속에서 현대 도시의 기존 특성들은 더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구천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인 메가시티의 등장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서구처럼 도시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를 통한 유기적 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자원과 기회를 흡수한다. 도시 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마저 퍼지고 있다.

대다수 도시인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공동체성을 담보하려고 하지만, 아파트가 그 자체로 계층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 간 격차나 불평등의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인구 1천만 이상인 메가시티 등장
도시인 맞춤형 포교프로그램 개발
포교당 수보다 접근성 용이가 중요

도시는 역사적 구성물이다.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라는 도시의 정의는 변화가 없지만, 도시 인구의 구성 비율이나 특성, 도시의 기능과 경제 구조, 위상 등은 늘 변화해 왔다. 도심 포교당은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포교의 관점에서 도시인들의 종교적 욕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절 인연에 맞는 적합한 포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도시인의 종교적 욕구 충족은 결국 포교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따라서 도심 포교당은 소재한 도시 주민들의 종교적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다만, 인구 대비 포교당 수가 적다고 하여 무조건 포교당을 늘릴 필요는 없다.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포교당이 많아지는 것은 관리 부실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전제하면, 꼭 도심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면 어디든 도심 포교당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회나 성당처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심 포교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진정성을 갖고 도시와 도시인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일당백의 도심 포교당이 절실하다. 요컨대 핵심은 우수한 포교 역량이 응집된 효율성 높은 도심 포교당을 만들어 내고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社 說

갈항사지 석탑, 환지본처 이뤄져야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남면 오봉리 옛 갈항사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던 두 탑으로 2단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다. 탑의 기단에 '통일신라 경덕왕 17년(758)에 언적 법사 3남매가 건립했다'라는 내용이 이두문으로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가치가 크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도굴해 반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돼 1916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관리돼 왔다. 이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물관 정원의 장식으로 사용 중이다.

요즘 김천시는 갈항사지 석탑 이전 추진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9월 3일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중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에는 갈항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김충섭 김천시장이 9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이유도 갈항사지 석탑의 김천시 이전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천시 이전 계획안을 보고 받고 환지본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9월 10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갈항사지 석탑 이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기실, 다시 불교계와 지역으로 돌아와야 할 성보문화유산들은 일본, 미국 등 외국에만 있지 않다. 국내 박물관에도 상당 수 존재한다. 고려 초기 법인국사 탄문 스님이 조성한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의 경우 조선 후기 이후 주민들이 봉안당을 만들어 모시던 것을 1918년 일제에 의해 경성(현 서울)으로 이운됐다. 당시 기록에는 이운의 모습이 마치 군대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보원사지 철불은 경복궁에 전시됐고, 현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고려시대 범종 중 가장 오래된 범종인 '천흥사명 동종'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천흥사명 동종'의 경우 사찰이 쇠락하며 조선시대 남한산성에서 시각을 알리던 역할을 하게 됐고, 1910년에는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이 됐다. 해방 이후 이왕가박물관이 1969년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며 자연스레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됐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수장된 불상, 석탑 다수 존재
보원사지 철불 등 일제강점기 이탈… 환수 필요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강국이며,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시 세계 수준이다. 더 이상 서울 중심으로 문화유산이 소장·전시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일제에 의해 본래 자리를 떠난 불교문화유산을 지역과 불교계에 돌려주는 것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지자체와 지역불교계도 환수할 성보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하계연수교육 성료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은 9월 24~25일 양일간 충남 아산 도고교원연수원에서 '2024년 종도 하계연수교육'을 성료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